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도입 “반대”

산업계, 목표관리제 시행 후 도입해야 ... 제16차 총회 합의 어려워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11월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한 국제동향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입법동향을 설명했다.

여기에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해 거래제를 실시하게 돼 있음에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더욱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11월29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관련, 기후변화 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3>